

OECD/DAC 원조효과작업반 산하 제1작업팀 및 제3작업팀 회의 결과¹⁾

KOICA 정책연구실 편집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Reflection Exercise(원조효과작업반)에서 도출된 권고 사항에 따라 3개의 작업팀(Task Team)을 설치하였다. 이중 ‘글로벌공공재 및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제1작업팀(Task Team 1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Global Public Goods)’의 제 1차 회의가 '09.9.8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글로벌공공재 확대 및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OECD의 기여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개발협력 및 체제에 관한 제2작업팀(Task Team 2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nd Architecture)’ 제1차 회의가 '09.9.21 캐나다 OECD 대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Global Governance와 Aid Architecture, DAC 내부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남협력에 관한 제3작업팀(Task Team 3 on South-South Cooperation)’ 제1차 회의는 '09.9.15~16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향후 작성될 남남협력 사례연구에 관한 concept paper와 2010년 개최될 남남협력에 관한 보고타 고위급회의 준비 등이 협의되었다.

I. OECD/DAC 제1작업팀 1차회의결과

(Task Team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Global Public Goods, 글로벌공공재 및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에 관한 제 1작업팀)

1) 주OECD대표부 및 주미합중국대사관의 표제 회의참석 결과보고를 요약한 것임.

1. 핵심요지

1) 글로벌공공재(Global Public Goods, GPG) 관련

제1작업팀 의장인 네덜란드 DAC대표 Bert van Geel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보구축이 대표적인 글로벌공공재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개발커뮤니티의 기여방안 검토를 기존의 DAC작업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함. 특히 동 의장은 글로벌공공재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안과 동 글로벌공공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는 10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이행과제(deliverables)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차기 회의를 10.12(월) 개최하기로 함.

본회의에서 작업팀은 글로벌공공재 잠정목록(tentative list)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 재원조달 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함.

2)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작업팀은 DAC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은 OECD회원국과 개발도상국이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상호 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함. 아울러 작업팀은 PC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쉐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PCD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각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화와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밝힘.

작업팀은 OECD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정책연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의 포럼이며, OECD산하의 각 위원회간 정책조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PCD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OECD가 각국의 정책일관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함.

2. 회의 세부내용

1) 글로벌공공재(GPG) 논의

글로벌공공재 관련 주제 발표의 발제자인 독일의 Inge Kaul교수는 한 개인의 well-being 은 자국 정부의 정책선택 및 집행방향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지만 국경밖의 사건들 및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라고 설명. 무역자유화,

정보통신의 발달이 이루어진 세계화 시대일수록 한 개인의 well-being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더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음.

Kaul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No country, however powerful, can solve on its own. Cross-border cooperation is vital”이라는 문구와 Smart Diplomacy, Mutuality of Interests 의 강조가 글로벌공공재의 중요성에 대한 징표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자체가 자국에게는 ‘글로벌 공공약(Global Public Dad)’이 될 수 있다고 함. 소말리아의 불안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번한 해적행위가 여러 국가의 원활한 선박 및 화물 이동을 위협하는 ‘글로벌 공공약’이 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함.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공공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Mutuality of Interests” 컨셉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선진국을 비롯,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동 교수는 글로벌공공재와 원조/개발문제가 서로 양립 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글로벌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원인:

-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 및 디자인의 취약성
- 다자무역체제 (multilateral trade regime) 의 편파적인 구조
- 이동성이 있는 질병을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는 체제능력의 결함
- 기상위성에 대한 접근성 제약
- 인권문제의 불완전한 보편화
- 말라리아 컨트롤을 위한 치료약의 공급 부족

② 각각의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국가간 우선순위의 차이

- 경제발전의 단계, 국민소득수준,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 사회문화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호도 차이
-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공공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있어도 글로벌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투자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현상
- 선호도의 차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적 자금조달 (compensatory financing) 또는 보상적 지원(compensatory support) 이 개발도상국 등 경제적으로 덜 여유로운 나라들에게 공급되어야 함. 그러한 보상체제의 수립 없이는 국제적인 협상은 지연되거나 쉽게 붕괴될 수 있음. 예컨대 지구온난화 문제와 같이 글로벌공공재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③ pricing(또는 trading) 문제

- 개발도상국들은 때때로 글로벌공공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 대한 이해 필요
- 선진국들이 자국이 발표한 국제적인 공약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들의 기여를 돈을 주고 사는 방법(trading action) 고려 가능

또한 글로벌공공재 공급과 개발원조/ 개발 문제간의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글로벌공공재와 개발원조 효과성 및 효율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

- 글로벌공공재 scouting studies : 개발/ 원조와 관련이 있는 글로벌공공재가 무엇인지 검토(예: 불충분하게 공급되는 글로벌공공재, 접근이 제한되어있는 글로벌공공재, 예컨대, 지적재산권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확산의 제약)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저개발국가들이 input 할 수 있는 글로벌공공재 선정.
- 글로벌공공재 평가 연구 :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inaction)와 행동을 취할 경우 (corrective action)의 cost/benefit 연구 필요.

②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지원 필요.

③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협상 (예: 다자무역협상, 국제금융규제, 국제적인 보건이슈, 커뮤니케이션 및 교통 문제 등)시 각국 대표가 글로벌공공재의 증대가 자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④ 제도적 변화

- 개발도상국들의 관련부처 내부에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개설하는 한편, 외교부 내부에 글로벌문제와 국제협력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됨.
- 선진국의 경우, 외교부(개발청)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통합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DA 문제, 보상적 재정지원, 가격문제 등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⑤ 글로벌 매커니즘의 개혁

- 외부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커니즘, 즉, 금융위기나 새로운 질병의 확산이 발생하였을 때, 가난한 나라들이 받는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facility 가 필요.
- 또한 ODA가 각 나라의 컨디션과 priority에 따라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반면에 보상적 재정적인 지원은 계약에 기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외원조와 보상적 재정지원체

제 등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동 교수는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한 지적재산권 체제, 그리고 현재의 불공정한 다자무역체제의 변화, 농업 보조금,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펀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의 금융위기가 초래한 악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보상적인 성격의 재정지원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OECD/DAC의 역할에 관해, 작업팀은 글로벌공공재 분야에서 DAC의 역할은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각국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글로벌공공재 증진 가이드라인 제공,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재원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확장된 틀의 제시, 추가성(additionality) 여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증진이 필수적이라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

노르웨이는 DAC회원국들의 글로벌공공재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노르웨이의 경우,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글로벌공공재 지원을 위한 예산계정을 ODA와 별도로 두어 GNI의 0.3%를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

EC는 글로벌공공재 및 PCD에 대한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제시하였으며, 발제자는 부연설명을 통해 각 글로벌공공재별로 각각 다른 부처들의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issue ambassador”가 필요할 것임을 제안.

회원국 대표들은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개발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문제로 인해 글로벌공공재 보존 및 공급문제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DAC이 개도국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 정책이슈를 다룰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논의

글로벌공공재 관련 주제 발표의 발제자인 네덜란드 개발청의 Frederik Haver Droeze 정책일관성담당 고문은 DAC Reflection Exercise가 개발에 대한 정책일관성(PCD)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동 보고서에 따라 DAC은 ① PCD에 관련된 성과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출간, ② 대중의 PCD에 대한 인식제고, ③ 글로벌포럼을 활용,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 필요성 및 글로벌공공재문제와 연계된 PCD 개념 정립, ④ PCD제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체제능력(capacity)제고, ⑤ Coherence indicator(정책일관성 측정지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동 고문은 PCD 는 단순한 개발원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OECD 전체의 역할 및 개발정책 문제에 대한 쏠방위적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동 고문은 PCD 의 목표는 정책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whole of country approach, 국제적으로 global public goods, 다양한 UN개발조직들간의 정책일관성 강화 등 PCD 와 관련된 많은 개념과 컨셉들이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 설정 및 개념 정의를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PCD 추진을 위해서 DAC은 우선적으로 PCD추진의 결과가 빈곤해결 이라는 성과로 나타나도록 결과중심적(result-oriented) 정책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개발전략과 원조효과성 문제를 연계시켜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언급함.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정책간의 유기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핵심요체라고 할 수 있으며, DAC은 지난 2003년부터 세 차례의 원조효과 고위포럼(HLF)개최를 통해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평가함.

다만 PCD가 여러 정책들간의 일관성을 구축하는 문제이므로 여러 정책들을 한꺼번에 다루다보니 여러 정책들간의 연결고리가 심하게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로인해 PCD 의 역효과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아울러 PCD에 관련된 OECD-DAC의 중요한 문서로 'The DAC Strategy Shaping the 21st century (1996)', 'The DAC Guidelines on Poverty Reduction (2001)'를 제시하고 향후 PCD를 위한 개발측면에서의 분야별연구 (무역, 농업, 어업, 보건, 정보통신기술, 환경, 반부패 연구 등), 환경분야와 개발분야간의 정책일관성 평가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동 고문은 2002년 OECD 각료이사회(MCM)는 PCD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분야로 무역, 농업, 환경, 투자, 보건, 교육을 선정했다. 2008년 각료이사회에서는 경제와 금융, 이주, 어업, 치안,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가 추가되었음을 부연하고, 향후 PC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OECD Council은 “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strategic goals on development)” 결정을 2010년에 개최될 각료이사회 의제로 상정키로 결정하였다고 설명.

PCD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는 PCD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회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발담당부서가 개도국의 쏠정부차원의 정책일관성 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당해 국가의 개발협력 외교전략에 반영시키는 것이 PCD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

3. 평가

기후변화 문제의 글로벌 핵심의제화, 개도국 및 취약국가의 security제고 필요성, 전반적인 개발원조 성과 제고 요구 대두에 따라 글로벌공공재 및 PCD 논의가 DAC의 3대 핵심논의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동 논의를 통해 도출될 DAC의 ‘글로벌공공재’ 목록은 향후 DAC공여국의 중점 개발협력 대상으로 권고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수단이라는 논의가 다수 제시된 바, 향후 서울 HLF-4준비 프로세스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HLF-4 주최국인 한국 정부도 PCD제고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원조효과작업반 집행위원회(WP-EFF ExCom)등 HLF-4 준비프로세스 회의 시 향후 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II. OECD/DAC 제2작업팀 1차회의결과

(Task Team on Global Governance and Aid Architecture, 개발협력 및 체제에 관한 제2작업팀)

1. 회의 개요

OECD/DAC 원조 제2작업팀(Task Team on Global Governance and Aid Architecture)은 9.21(월) 주OECD 캐나다 대표부에서 Nicole Gasnot 캐나다 DAC 대표 사회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함.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캐나다를 의장국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벨기에, 스위스, 미국, EC, 세계은행 등이 소속된 제2작업팀은 개발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및 원조구도(Aid Architecture) 구축을 위해 향후 DAC이 추진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1차 초안을 10.13(화) 제2차 작업팀 회의 시까지 작성기로 함.

Global Governance 와 Aid Architecture 문제는 UN 개발재원회의, UN개발포럼(UN DCF) 등 여러 주기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합의도출과 이행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DAC이 공여국의 중심포럼으로서 기존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동 논의와 현실간의 갭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작업팀은 Global Governance 와 Aid Architecture 논의에 있어서 DAC이 당면한 과제는 ① 현재의 개발구조는 대단히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지만 그 복잡성의 정도가 매우 높고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어디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② 개발구도에 대한 개혁을 DAC이 주도해야 한다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은 (demand-driven) 상태가 아니며, ③ 작업에 착수한다고 해도 UN DCF, UN개발재원회의 등 공동작업 파트너 기관에 일정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협력이 곤란하다는 점이라고 지적.

당 대표부는 개발구도에 대한 DAC의 기여문제는 공여국과 수원국, 국제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원조효과작업반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2작업팀 논의는 2010년 10월 Global Aid Architecture 세미나(서울)에서 중간성과물을 도출한 후, 궁극적으로는 서울 HLF-4(2011)에서 최고위급의 정치적인 임무부여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주요 내용

1) 문제의 인식

사무국 Richard Carey 개발협력국장은 현재 국제개발시스템의 경우, 전체적인 Framework에 해당하는 주요 Architect를 포괄하는 Locus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현재의 Aid Architecture는 주로 네트워크 수준의 수평적 작업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함.

동 국장은 원조 공여주체의 다변화, 원조분업(division of labor), 원조체계 의 복잡성,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력한 신흥공여국, 급격히 증가하는 다양한 규모의 다자개발기구들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어 전체적인Global Governance, Aid Architecture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함.

2) 문제의 원인 분석

William Nicole 개발협력국 빈곤감축 및 성장과장(Poverty Reduction & Growth)은 현재 Aid Architecture 문제 접근에 있어서 이노베이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무역과 투자 간의 상호보완성, 또한 이주관련 송금문제, 효율적인 자원제공방법(ODA와 non-ODA 통합관리 매커니즘), 쏠정부적 문제해결 노력(Whole of country,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해 내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중 하나라고 평가함.

Nicole 과장은 현재 DAC의 기본 구도인 기존의 North-South 협력방식은 아주 낡은 것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개별국가 차원, 다자기구 차원, 민간기관 차원의 주요행위자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3) 다자개발구도 이슈

본 회의에서는 다자적 개발시스템의 구축, 거버넌스 이슈에 관련하여 DAC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DAC의 개혁과 글로벌 다자구도에 대한 제안이 다자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아울러 다자체제의 검토에 있어서도 역시 새로운 원조국가로 부상하는 주요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들의 영향력이 국가차원에서의 공여국-수원국 관계정립 뿐만 아니라 UN체제와 Bretton Woods 체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함.

4) DAC내부 개혁에 관한 의견

작업팀 의장을 맡고 있는 Gasnot 캐나다 DAC대표는 매우 복잡한 Global Architecture 문제를 논하기 전에 DAC 스스로 내부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DAC 테두리 밖의 국가와 기관들의 의견을 청청하고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동 의장은 DAC China Study Group 과 UNDCF 와 같은 논의그룹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DAC의 비교우위를 모색하고 DAC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적자원과 지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일본은 ECOSOC, DCF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DAC이 Global Aid Architecture 문제를 주도할 지, 아니면 멘데이트를 약화시키고 다른 기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지원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EC는 DAC 의 최대장점은 폭넓고 자유로운 그로벌차원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UN DCF 경우 개도국과 공여국 모두로부터 부여된 Legitimacy 가 존재하지만 일 년에 두 번의 회의만을 개최하는 회의조직이므로 DCF와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발을 말할 때 ODA만을 논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고 DAC의 과제는 ODA문제를 넘어서서 개발을 위한 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C는 또한 최근 중국과 아프리카의 nexus 문제는 주목해야할 사안이지만 DAC차원에서 특별한 대응방안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다자원조문제, European aid 문제 등 국제개발의 주요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정리하는데 진전이 아직 미흡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Freedom of Investment Initiative 나 Tax Forum 의 활동들이 글로벌 개발 커뮤니티 안에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멕시코는 새로운 개발환경 하에서 DAC는 전통적 공여국의 클럽이 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DAC회원국이 아니면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 또는 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이 미치는 함의는 무엇이고, 이들의 공여 행위에 대해 DAC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강조. 이와 동시에 내년 초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South-South Conference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작업반에 요청함.

독일은 원조의 분절화(fragmentation)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Global Aid Architecture 개편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좀 더 유연한 형태의 워킹그룹들을 만들어 내야하며 다자적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스위스는 지금까지 Aid Architecture 및 개발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Aid Architecture, Aid Governance를 넘어서서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Development Governance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함.

III. OECD/DAC 제3작업팀 1차회의결과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남남협력에 관한 제3작업팀)

1. 회의내용

1) 남남협력 사례연구에 관한 Concept Paper 관련 논의

콜롬비아는 남남협력의 사례연구를 통해 개도국의 파리선언(PD: Paris Declaration) 및 아크라 행동계획(AAA: Accra Agenda for Action) 이행을 강화하고 2010년 3월 남남협력에 관한 보고타 회의에서 남남협력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2011 서울 고위급회의(HLF-4)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작업반의 활동계획이라고 설명함.

동 작업의 Concept Paper의 사례 연구가 갖는 목적은, ① PD와 AAA의 남남협력에의 적용, ② 남남협력의 사례와 경험 적용을 통한 원조효과 의제 강화, ③ 남남협력과 남북협력간 상호보완성 파악 등 3가지이며, 사례선정의 대상은 ① 수원국과 공여국간 수평적 관계(horizontality), ② 경험의 전파 가능성, ③ PD와 AAA 원칙의 적용 여부, ④ 수원국의 개발 계획과의 조화(coordination), ⑤ 개발역량 강화, ⑥ 지역적 균형 등 다섯 개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분야는 기술협력으로 한정함.

참석자들은 사례연구 취지 및 모범사례 선정 기준 등 동 concept paper의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러나 사례연구의 범위와 관련, 한국 대표단을 비롯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남협력이 기술협력이외에 인프라 건설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분야에서 원조효과 규범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임을 지적하고, 기술협력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연구결과가 남남협력 전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콜롬비아측은 사례연구의 목적이 신흥공여국의 참여에 따른 남남협력의 활성화를 강조한 AAA 19항의 이행에 있다고 하면서, 보고타 회의가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기술협력이외의 전반적인 남남협력에 대한 연구는 유엔 등 여타 기관에서 진행 중이므로 급변 작업은 기술협력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러한 제한된 범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보고타 회의 이후 여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 결과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음.

2) 보고타 남남협력 고위급회의 개최 계획

Maruri Enrique 콜롬비아 외교부 국제협력 과장은 보고타 남남협력 고위급회의는 2010.3.24-26, 보고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구성은 ① (3.24) 개최, 본회의(plenary discussion) 및 4개 라운드테이블, ② (3.25) 본회의(HLF-4에 대한 권고안 제안) 및 Knowledge Fair 행사, ③ (3.26) 권고안 채택을 위한 각료급(고위급) 회의 및 폐회로 이루어진다고 밝힘. 동 회의 참석 인원은 300-500명 사이로 예측됨.

지역준비회의 개최 관련, 콜롬비아측은 중남미 지역회의는 2009.10월 OAS연례회의 또는 11월 IDB회의 계기에, 아태지역 준비회의는 2010.1.31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힘. 아프리카 지역 준비회의는 아직 개최장소나 시기가 미정이나 2010년 1월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중남미 지역회의는 미주개발은행(IDB)이, 아프리카 지역회의는 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PAD)이, 아시아 지역회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coordinator 역할을 담당키로 하였음.

한국 대표단은 아태지역 역내 국가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여타 지역에 비해 지역적 차원의 perspective 개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모범사례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에서 PD 및 AAA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실패사례의 발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또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한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3개 지역의 사례 발굴시 동일한 format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태지역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 준비회의에서의 경험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삼각협력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협력 사례 발굴에도 관심을 갖고 회의를 준비하겠다고 언급함.

2. 평가

남남협력에 관한 제3작업반(TT-SSC)의 작업범위와 관련, 회의 내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TT-SSC의 활동 범위 및 보고타 회의의 목적을 남남협력 중 기술협력 부분으로 한정키로 하였는바, 전반적인 신흥공여국의 활동에 관한 분석은 결국 내년 10월 우리나라 개최예정인 New Aid Architecture에 관한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남겨지게 되었음.

현재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을 포함한 남남협력 전반에 관한 연구 작업은 DCF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UN DESA 및 UNDP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한국의 HLF-4 및 명년 10월 준비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동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의 개발협력 활동이 아직까지 남남협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 기간 내내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 공유 사례들이 남남협력 논의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관련, 2010년도 DAC가입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사례를 남남협력의 모범사례로 적극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 개도국간 협력을 지원한 삼각협력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다만, 삼각협력 사례의 경우에는 일본이 워낙 다수의 모범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이를 능가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 필요.

서울 지역준비회의와 관련, 보고타 남남협력 고위급회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KOICA의 기술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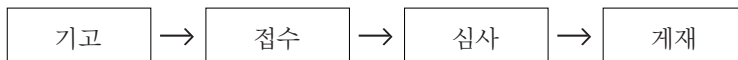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 논문기고 안내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1. 『국제개발협력』 발간 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제3세계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세계 개발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2. 『국제개발협력』 원고게재 절차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우편접수 시에는 논문의 원본 파일이 저장된 CD 1매를 동봉한다.

E-mail : callforpapers@koica.go.kr

주소 :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 원고 접수는 각 호의 원고 마감일에 따른다.

호	기고문 주제	원고 마감일
2009년 제4호	DAC 가입과 한국 ODA의 과제	2009. 10. 31

※ 상기 주제는 발간 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고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국제협력단이 정하는 “‘국제개발협력’ 원고집필요령”(KOICA 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야 한다.
- 기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없는 창작 논문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

- 심사 절차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국제협력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논문의 심사는 국제협력단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논문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3) 게재

-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한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연구자료 정책연구 2009-07-087

국제개발협력 2009년 제3호

발 행 2009년 10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홍보위원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우: 461-833)
전 화 031)740-0301
팩 스 031)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아테라커뮤니케이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88133-90-3 13320